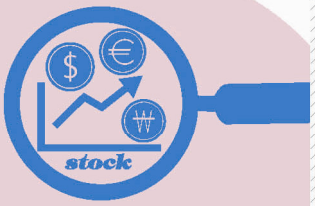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Weekly Strategy & Economy

일시적 조정 요인이 완화될 듯

2013. 1. 21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마주욱
02) 3787-5025
majuok@kiwoom.com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키움증권

Contents

1. 주간 증시: 일시적 조정 요인이 완화될 듯 3

2. 국내외 주요 이슈: 중국 경기의 회복 4

3. 주간 경제 전망: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상승 5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반등 7

5. 수급동향: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영향은? 9

6. Earnings & Valuation: 4/4분기 어닝시즌 10

7. 해외 증시 동향 11

Chart & Table 13

일시적 조정 요인이 완화될 듯

>>> 이번 주 국내 증시, 박스권 등락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전망(1,960~2020pt).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조정 요인은 완화될 것.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따른 수급 불균형, 엔화 약세,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더해 중국 주식시장과 경제의 반등, 미국 기업의 4/4분기 실적호조 등은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 경기회복세 뚜렷

중국 2012년 GDP 성장률은 7.8%로 목표치 7.5%와 시장예상치 7.7%를 모두 상회. 4/4분기 역시 7.9%를 기록. 그외 경제지표 역시 지난달 보다 호전되거나 지난 수준을 유지. 이로써 중국 경기는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4/4분기부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한편, 도시화율은 52.57%로 지난해 보다 약 1.3%pt 확대. 12차 5년 계획의 목표에 맞춰 진행 중. 도시화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따른 실수요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 날 듯.

>>>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영향은?

뱅가드는 지난 10일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ETF의 벤치마크를 FTSE로 변경. 이에 따라 6월 말까지(25주간) 9조 2,000억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것. 그러나, 최근 MSCI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블랙록의 iShares 신흥국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이머징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이 대규모 유입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의 불균형은 제한적일 듯. 올해 상반기 중에도 외국인 매매는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1. 주간 증시: 일시적 조정 요인이 완화될 듯

>>> 국내증시 주간 전망

이번 주 국내 증시, 박스권 등락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1,960~2020pt).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조정 요인은 완화될 전망이다.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따른 수급 불균형, 엔화 약세,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중국 주식시장과 경제의 반등, 미국 기업의 4/4분기 실적호조 등은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뱅가드는 지난 10일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ETF의 벤치마크를 FTSE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25주간) 9조 2,000억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주당 4,000억 원 내외 규모). 그러나, 최근 MSCI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블랙록의 iShares 신흥국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이머징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이 대규모 유입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외국인 수급의 불균형 우려는 완화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도 외국인 매매는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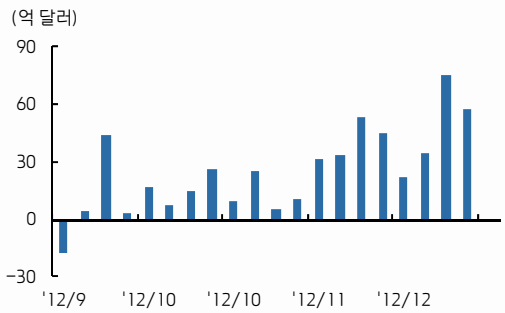
이번 주 일본은행(BOJ)은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하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기존 1%대에서 2%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기대로 지난주 엔/달러 환율은 90엔을 상회했다. 이미 엔화 약세의 재료는 노출된 상황이고,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에서 '환율전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는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엔화 약세 기조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3개월 간 임시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이번 주 주중 부채상한 임시 상향 조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역시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노력은 정부지출 축소와 부채상한 상향조정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유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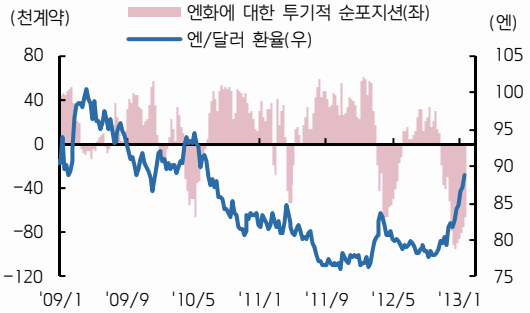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위험통화로의 자금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기업들의 4/4분기 기업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중국 증시 및 경제는 반등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이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무엇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Datastream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추이



자료: Datastream

2. 국내외 주요 이슈: 중국 경기의 회복

>>> 중국의 경기회복세 확인

중국의 지난 4/4분기 및 12월 주요 경제지표들은 중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었다. 2012년 중국 GDP 성장률은 7.8%, 4/4분기 GDP 성장률은 7.9%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정부목표치(7.5%)와 시장 예상치(7.8%)를 모두 상회한 수준이다. 전분기대비 GDP 성장률도 2.1%에서 2.2%로 상승하며 지난 해 4/4분기부터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12월 소매판매는 11개월 만에 15%를 넘어섰다. 이는 주택거래 증가에 따라 건자재, 가구 등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생산의 경우 전년대비 10.3%를 기록했다. 12월 전기 사용량은 11.5%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다. 한편, 고정자산투자(20.6%)는 지난 수준을 유지했다.

12월 부동산 가격 동향도 같은 날 발표되었다. 70개 도시 중 신규 상품방 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54개, 하락한 도시는 8개로 가격 상승 지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억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민들의 소득분배 및 세금제도 개선이 진행된 2012년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2.6% 상승했다. 이는 상품방 가격 상승률인 1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도시화건설 정책을 중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는 주택 가격상승에 있어서는 다소나마 가격 상승을 용인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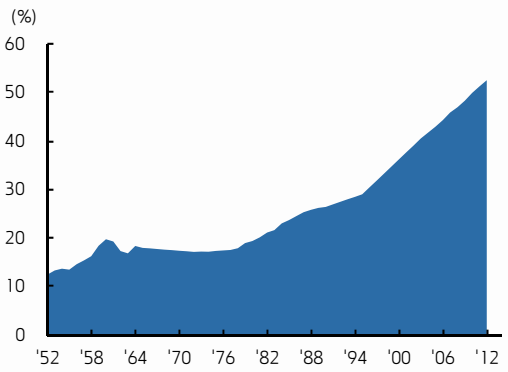
2012년 도시화율은 52.5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3%pt 확대된 수준이다. 12차 5년 도시화 계획은 연평균 1%pt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전인대 이전까지 각 부처의 공작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도시화 건설계획 및 제도개혁을 지속해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철도부는 올해 철도건설에 6,500억 위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력망, 통신망, IT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 역시 지난 해보다 약 4,000억 위안 늘어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화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따른 실수요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난 해 4/4분기 및 12월 경제지표 현황

주요 경제지표	이전치(%)	발표치(%)	전망치(%)
2012 년 GDP	9.3	7.8	7.7
4/4 분기 GDP	7.4	7.9	7.8
산업생산(YoY)	10.1	10.3	10.2
소매판매(YoY)	14.9	15.2	15.1
고정자산투자(YTD)	20.7	20.6	20.7
민간고정자산투자(YTD)	25	24.8	na
부동산경기지수(pt)	95.71	95.59	na
부동산개발투자(YTD)	16.7	16.2	na
소비자물가(YoY)	2	2.5	2.3
생산자물가(YoY)	-2.2	-1.9	-1.8

자료: 키움증권 정리

중국 도시화율 추이



자료: CEIC

3. 주간 경제 전망: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상승

>>> 국내 경제

2012년 4/4분기 GDP, 전분기비 0.3% 성장 전망

201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전망된다(전분기비 0.3%). 지난해 3/4분기 GDP가 전분기비 0.1% 성장에 그쳤음을 감안할 때 4/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소폭이나마 반등했을 것이다. 글로벌 경기개선 영향으로 수출이 회복됐고, 소비지출 역시 추운 날씨 등에 힘입어 다소나마 개선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은 전월에 비해 개선됐을 것이다. 소비심리가 소폭이지만 개선됐고, 추운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의류 판매 등이 호조를 보였을 것이다. 전반적인 소비지출 회복을 논하기 힘들지만, 글로벌 경기회복과 환율하락 등은 내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 미국 경제

지난해 12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비 0.3% 상승 예상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지수 하락을 가져왔다. 그러나, 주택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졌고, 금융지표 역시 개선됐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 하락했던 경기선행지수는 12월 중 상승세로 전환됐을 것이다. 물론, 월초 '재정절벽' 협상이 부분 타결됐고, 정부 부채한도 증액과 지출축소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폭이나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절벽' 여파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 중국 경제

2012년 4/4분기 경제성장률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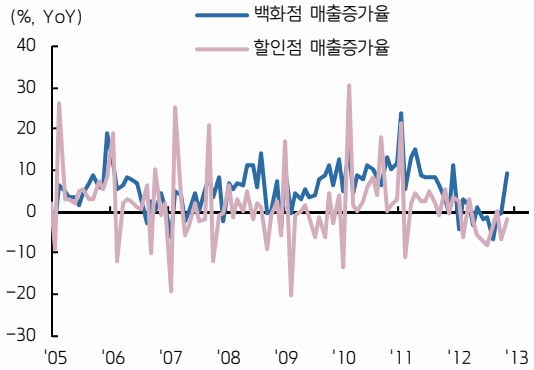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7.9%를 기록했다. 정부의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SOC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비 및 투자, 생산 증가율이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더해 수출 역시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8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함으로써 경기 경착륙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21~1.25)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중요도	전망치	이전치
1월 21일	한국	할인점 매출(YoY)	1월	C	NA	-1.7%
		백화점 매출(YoY)	1월	C	NA	9.1%
	유럽	유로존 재무 장관회의				
		스페인 국채만기(0.5억 유로)				
1월 22일	미국	기존주택 매매(SAAR)	12월	A	5.10M	5.04M
	유럽	유로존 PMI 제조업	1월 A	B	46.8	46.1
		유로연합 27개국 재무 장관회의				
		스페인 국채입찰				
1월 23일	미국	MBA 모기지신청지수(WoW,SA)	1월 3주	B	NA	15.2%
1월 24일	한국	GDP(YoY)	4Q P	A	1.9%	1.5%
	미국	경기선행지수	12월	B	0.3%	-0.2%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SA)	1월 3주	B	360K	335K
	유럽	스페인 국채만기(1억 유로)				
1월 25일	미국	신규 주택매매(SAAR)	12월	A	382K	377K
	유럽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1월	B	103.0	102.4

주: '중요도'는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으로, A는 경제전망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 변수를 지칭.

국내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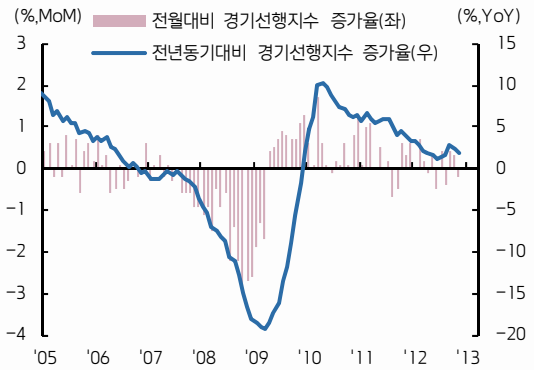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미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Conference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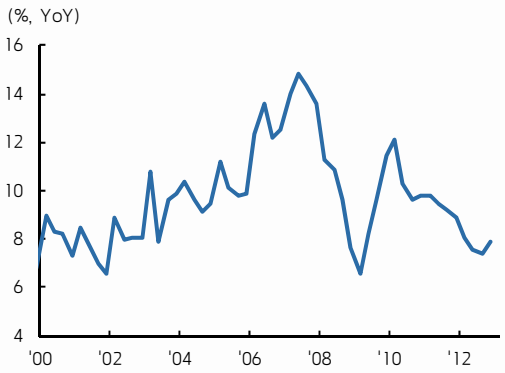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자료: Department of Labor

미국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중국 GDP 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 통계청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반등

>>> 지난 주 동향

달러화, 유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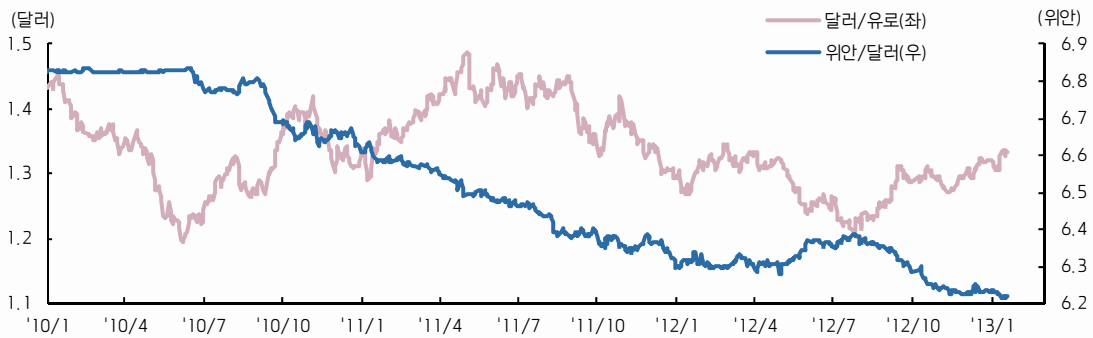
지난주 달러지수는 전주대비 0.59% 상승했다. 유로 경기침체 우려와 유로그룹 의장의 '유로 환율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발언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가 하락했다. 지난해 독일 경제성장률은 부진했고,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함에 따라 유로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중국의 4/4분기 경제성장률 반등과 스페인 국채입찰 호조 등은 달러화 강세 폭을 제한했다.
한편,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졌으며, 주말 엔/달러 환율이 90엔을 상회했다. 지난 한주간 엔/달러 환율은 1.03% 추가 상승했다. 다음주 예정된 금융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BOJ)이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약 10조 엔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한 일본은행(BOJ)이 물가 목표치를 2.0%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0.23% 상승한 1,057.08원에 마감됐다. 엔-원 숏 커버와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규제에 대한 경계 등이 원화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네고 물량과 중국 GDP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아시아 통화지수 및 달러지수

자료: Datastream

유로화 및 위안화



자료: Datastream

>>> 이번 주 전망

원/달러 환율, 1,040~1,070원 중심 등락 예상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1,040~1,070원 중심의 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 초반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 이후 엔화 약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규제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 초반 이후 원/달러 환율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040~1,070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 변동률

	전주 말 1월 18일	1주 전 대비(%)	12월 말 대비(%)	2012년 말 대비(%)	1월 4일	12월 말	6개월 전	2012년 말
달러/유로	1.3321	-0.16	0.94	0.94	1.3343	1.3197	1.2266	1.3197
엔/유로	119.98	0.82	4.95	4.95	119.01	114.32	96.71	114.32
엔/달러	90.10	1.03	4.02	4.02	89.18	86.62	78.85	86.62
위안/달러	6.2181	0.04	-0.20	-0.20	6.2158	6.2306	6.3695	6.2306
원/달러	1,057.08	0.23	-0.69	-0.69	1,054.69	1,064.40	1,142.55	1,064.40
원/100엔	1,173.30	-0.79	-4.52	-4.52	1,182.62	1,228.82	1,449.10	1,228.82
대만 달러/달러	28.95	-0.02	-0.29	-0.29	28.95	29.03	29.99	29.03
스위스 프랑/달러	0.9342	2.27	2.13	2.13	0.9135	0.9147	0.9791	0.9147
달러/호주 달러	1.0510	-0.24	1.22	1.22	1.0535	1.0383	1.0363	1.0383
달러지수	80.04	0.59	0.33	0.33	79.56	79.77	83.07	79.77

자료: Datastream

원/달러 환율 vs 엔/달러 환율

자료: Datastream

5. 수급동향: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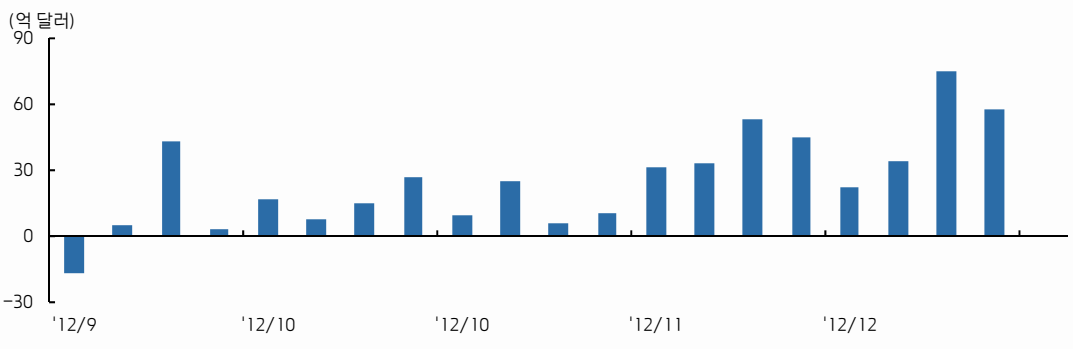
벤치마크 변경 영향만을 감안할 때, 7월 3일까지 주간 평균 4,000억 내외 매도압력 존재

세계 최대의 ETF 운용사인 뱅가드는 운용비용을 축소하고자 MSCI 지수를 사용했던 6개 펀드의 벤치마크를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FTSE로 변경했다. 2013년 6월 말 이후 뱅가드는 FTSE 지수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 한국은 MSCI에서는 신흥시장에 속하지만 FTSE에서는 선진시장으로 분류된다. 벤치마크의 변경으로 뱅가드 펀드 내에서 선진국 지수 추종 펀드는 한국을 새로 편입해야 하고, 신흥국 지수 추종 펀드는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 현재 뱅가드 펀드의 총 운용규모는 1,7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1,000억 달러가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고 나머지 700억 달러가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선진국 대 신흥시장이 약 8:2 정도이다. 즉, 뱅가드의 경우 신흥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6:4)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신흥국에서 약 17%, 선진국에서 약 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추종 1,000억 달러에서 2%인 20억 달러 내외가 유입되고,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700억 달러에서 17%인 119억 달러 내외가 유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Net으로는 약 100억 달러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셈이다. 뱅가드는 지난 1월 9일 FTSE Emerging Transition 지수를 발표하며 신흥시장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FTSE Emerging Transition Index는 지수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임시 벤치마크 지수로 한국 비중을 매주 수요일 4%씩 줄여서 25주 뒤 (7월 3일)에는 한국 비중이 0%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즉 약 4,000억 원의 매도압력이 25주간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이머징으로의 자금유입을 감안할 때, 외국인 수급 불균형은 제한적일 듯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급격한 수급 불균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뱅가드의 경쟁사인 블랙록의 iShares 신흥국 ETF가 매도물량을 일정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뱅가드가 신흥시장 ETF의 벤치마크를 FTSE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이후 동 펀드에서 13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반면, MSCI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iShares 신흥국 ETF로는 90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글로벌 자금이 상대적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이머징으로 유입되고 있어, iShares 신흥국 ETF의 한국 주식 비중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머징 및 한국관련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Datastream

6. Earnings & Valuation: 4/4분기 어닝시즌

>>> S&P 500 기업, Positive Surprise 67.2%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6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다. 이들 중 Positive Surprise 비율은 67.2%, Negative Surprise 비율은 19.4%를 기록 중이다. 이는 전년동기 Positive Surprise 비율 62.2%, Negative Surprise 비율 27.9%를 감안할 경우, 양호한 수준이다. 영업이익 기준 EPS는 전년대비 30.9%, 당기순이익 기준 EPS는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67개 기업을 바탕으로 한 S&P 500 Index EPS는 전년동기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으며, 헬스케어 업종을 제외 시 전반적인 실적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Positive Surprise 발생 비율은 경기소비재(90%) 및 안정소비재(80%)가 높았으며, 산업재(67%)와 IT(67%) 업종은 시장 평균수준이었다.

주요 지역 및 증시 EPS 추정치 변화율

구분	지역 및 국가	12개월 Forward 기준				2012년 실적전망 기준			2013년 실적전망 기준			PER
		1W	1M	3M	6M	1M	3M	6M	1M	3M	6M	
대륙	AC World	0.8	0.4	-0.8	0.4	-0.4	-2.3	-3.8	-0.6	-3.6	-5.0	12.4
	AC Asia-Pacific	0.2	-0.3	-1.8	-2.8	-2.1	-7.8	-12.0	-1.7	-4.9	-8.3	12.4
	AC Asia-Pac. Ex. JP	0.5	1.0	2.5	1.4	-0.4	-0.7	-3.2	0.0	-0.5	-4.6	12.0
	AC Americas	2.0	0.5	-0.8	0.6	0.0	-1.5	-2.1	-0.4	-3.5	-5.0	13.1
	AC Europe	-0.9	0.8	0.0	2.6	0.0	0.2	-0.3	0.0	-2.5	-2.4	11.1
선진 시장	World	0.8	0.3	-1.2	0.2	-0.4	-2.4	-3.5	-0.8	-4.0	-5.3	12.7
	G7	1.1	0.2	-1.6	-0.2	-0.5	-2.6	-3.6	-0.9	-4.3	-5.6	12.6
신흥 시장	Emerging Market	0.4	1.2	1.5	1.4	-0.3	-1.9	-5.4	0.4	-1.2	-3.8	10.6
	Emerging Market Asia	0.5	1.5	3.1	3.3	-0.4	-1.3	-4.1	0.4	-0.2	-3.3	11.0
아시아 태평양 (8)	KOREA	0.4	1.6	2.8	3.6	-1.7	-3.2	-7.4	0.0	-1.4	-3.7	8.5
	JAPAN	0.5	2.8	1.1	-1.3	-0.3	-12.0	-20.2	0.6	-2.1	-6.2	13.3
	CHINA	0.3	1.5	1.8	-1.5	0.1	-1.5	-5.6	0.6	-0.5	-6.5	10.1
	INDIA	0.0	1.0	0.9	1.0	-0.2	-3.0	-6.1	0.0	-2.1	-5.2	14.3
	TAIWAN	0.1	0.9	5.0	0.7	-0.5	-1.4	-9.2	-0.2	0.9	-8.2	14.2
	SINGAPORE	-0.4	0.4	-1.7	-2.5	0.2	-0.6	-0.8	-0.4	-3.2	-6.7	13.9
	HONG KONG	0.1	0.8	2.1	3.4	-0.1	-0.4	-2.2	-0.1	-0.5	-2.2	15.5
	AUSTRALIA	-0.2	0.4	-1.1	-6.6	-0.3	-3.4	-4.0	-0.5	-3.4	-1.4	13.3
아메리카 (4)	USA	2.1	0.5	-0.7	0.8	0.0	-1.2	-1.4	-0.5	-3.5	-4.8	13.1
	CANADA	0.2	1.2	1.5	-0.4	1.0	-0.2	-4.4	0.2	-1.4	-6.5	12.9
	BRAZIL	-0.6	-1.2	-5.8	-7.8	-3.5	-11.0	-18.9	-1.9	-8.9	-12.5	10.7
	MEXICO	0.0	1.0	2.4	2.7	0.4	2.2	-2.6	-0.2	-1.2	-4.0	17.6
유럽 (5)	UK	0.2	0.5	-1.2	-5.0	0.0	-1.2	-6.9	-0.3	-3.5	-9.3	11.0
	FRANCE	-0.1	0.5	-1.0	-1.9	0.0	-0.6	-4.4	-0.5	-3.5	-6.8	11.1
	GERMANY	-0.2	0.7	-0.8	-2.1	-0.4	7.2	5.1	-0.3	-3.6	-7.5	11.0
	ITALY	-0.3	0.3	-3.3	-7.5	-0.2	-4.0	-10.2	-0.9	-6.2	-13.2	9.7
	RUSSIA	-0.5	1.2	-0.9	-0.3	0.1	-1.7	-3.6	1.9	-0.1	2.6	5.1

자료: IBES

S&P 500 2012년 4/4분기 Earnings Snap Shot

	Reported /Total	Share Weighted %Change	Earnings (+)	same	Surprises (-)	Sector EPS
Consumer Discretionary:	10/83	-3.3%	9	0	1	$2.64
Consumer Staples:	5/42	6.4%	4	0	1	$2.40
Energy:	2/43	10.2%	1	0	1	$3.30
Financials:	26/81	70.7%	17	3	6	$4.52
Health Care:	2/52	-23.2%	0	1	1	$2.79
Industrials:	6/60	7.5%	4	1	1	$2.45
Information Tech:	12/70	-5.6%	8	2	2	$5.64
Materials:	4/30	14.5%	2	2	0	$0.63
Telecom Svcs:	0/8	na	0	0	0	$0.38
Utilities:	0/31	na	0	0	0	$0.68
Total Reported:	67/500	31.0%	45	9	13	$25.41
Total Reported Ex-Financial:	41/419	-0.4%	28	6	7	

자료: Datastream

7. 해외 증시 동향

>>> 지난 주 다우지수, 1.20% 상승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마감

지난주 미 증시는 주택경기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다. 본격적인 4/4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되었고 미국의 주택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대형은행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반면, 인텔은 PC시장의 침체 및 과도한 투자로 실적이 악화되었다. 지난주 발표된 1월 2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만 5천 건으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미국의 12월 주택착공 건수도 최근 4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12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예상치(0.2%)를 상회한 0.5%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는 전월 최종치인 72.9보다 하락한 71.3을 나타내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반영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부채 한도 증액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부채 한도 증액 승인안은 다음주에 표결 처리될 예정이며, 상원과 하원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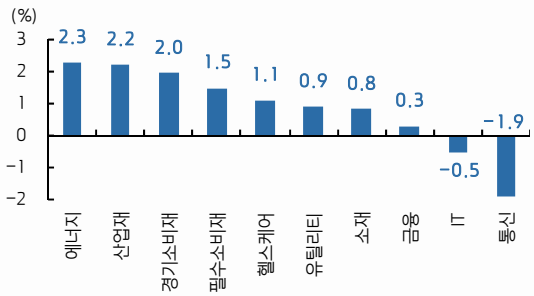
>>> 지난 주 상하이 종합지수, 3.30% 상승

경제지표 호조 및 토지제도 개혁 등으로 상승마감

지난주 중국증시는 2012년 4/4분기 GDP 성장률이 7.9%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세가 이어졌고 심천시 토지제도 개혁 등이 발표되면서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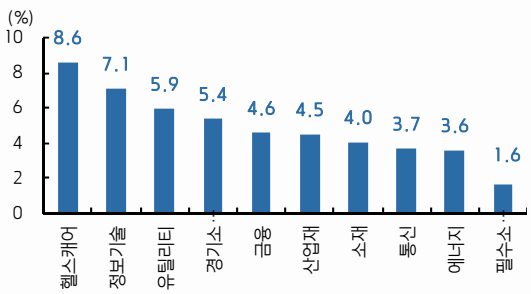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최근 주도주 중심의 조정양상이 마무리 되었다. 중국 2012년 GDP 성장률은 7.8%, 4/4분기 7.9%를 기록했다. 그외 경제지표 중 12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은 각각 10.3%, 15.2%로 전달보다 개선된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갔다. 고정자산투자는 20.6%로 지난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지난해 4/4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도시화율은 52.57%로 지난해 보다 약 1.3%pt 확대되었다. 한편, 심천시는 농촌 집체조직이 소유한 토지에 있어 공업용 토지로의 전환과 시장으로의 유통 등을 허가했다. 이로써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개발투자가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는 도시화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도 호전되고 있다. 70개 지역 중 54개 신규 상품방의 가격이 상승했다(전달 53개 지역). 더욱이 거래량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경기 개선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S&P 5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심호 3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KIWOOM

ONLINE NO.1 KIWOOM SECURITIES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Chart & Table

>>> 증시 주요지표

거래소 시장

구분			1/14	1/15	1/16	1/17	1/18
가격 지표	KOSPI		2,007.04	1,983.74	1,977.45	1,974.27	1,987.85
		등락폭	+10.37	-23.3	-6.29	-3.18	+13.58
		(시가)	1,993.82	2,006.89	1,988.44	1,983.67	1,987.65
		(고가)	2,007.04	2,016.37	1,996.46	1,986.34	1,988.47
		(저가)	1,989.24	1,983.74	1,970.01	1,964.62	1,976.72
		대형주 지수	1,995.42	1,970.77	1,965.82	1,963.32	1,975.89
		중형주 지수	2,139.26	2,117.96	2,096.99	2,091.60	2,112.65
		소형주 지수	1,347.73	1,342.77	1,342.48	1,336.76	1,347.34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421 (19)	264 (11)	346 (13)	345 (4)	546 (11)
		하락 (하한가)	385 (1)	538 (2)	468 (3)	451 (2)	243 (1)
	이동평균	(5일)	2,000.05	1,997.21	1,994.34	1,987.83	1,986.07
		(20일)	1,997.59	1,998.00	1,996.74	1,995.70	1,995.94
		(60일)	1,944.44	1,944.91	1,945.22	1,945.72	1,946.50
		(120일)	1,935.40	1,936.74	1,938.30	1,939.81	1,941.63
	이격도	(5일)	100.35	99.33	99.15	99.32	100.09
		(20일)	100.47	99.29	99.03	98.93	99.59
	투자심리	(%)	40	30	20	20	3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60,631	1,146,701	1,143,272	1,141,477	1,149,326
	거래량	(천주)	454,751	546,219	457,617	828,725	583,334
		이동평균 (5일)	504,809	515,307	485,315	550,904	574,129
		이동평균 (20일)	440,380	444,706	446,513	470,425	481,258
	거래대금	(십억원)	4,338	4,427	4,285	4,102	3,914
		이동평균 (5일)	4,255	4,342	4,394	4,303	4,213
		이동평균 (20일)	4,439	4,425	4,337	4,326	4,306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31	1,840	1,317	863	-46
	외국인	(억원)	-924	-2,277	-904	-1,150	312
	기관	(억원)	985	443	-352	467	-145
	일반법인	(억원)	-96	-35	-81	-187	-117
	프로그램매매	(억원)	2,161	-2,679	-1,700	-840	955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코스닥 시장

구분			1/14	1/15	1/16	1/17	1/18
가격 지표	KOSDAQ		513.44	508.02	515.42	506.35	512.24
		등락폭	-1.98	-5.42	0	-9.07	+5.89
		(시가)	516.93	514.82	516.91	510.40	509.85
		(고가)	517.11	515.20	517.37	510.67	512.28
		(저가)	513.42	508.02	512.77	504.92	508.94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387 (11)	293 (14)	451 (11)	384 (14)	634 (12)
		하락 (하한가)	558 (1)	626 (3)	469 (1)	543 (2)	281 (0)
	이동평균	(5일)	512.86	512.66	515.23	511.73	511.09
		(20일)	496.33	497.46	499.19	499.46	500.80
		(60일)	502.02	501.68	501.86	501.49	501.31
		(120일)	502.07	502.29	502.72	502.96	503.44
	이격도	(5일)	100.11	99.09	100.04	98.95	100.22
		(20일)	103.45	102.12	103.25	101.38	102.28
	투자심리	(%)	80	70	60	60	6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2,645	111,459	113,098	110,899	112,261
	거래량	(천주)	443,514	496,289	435,553	525,179	477,339
		이동평균 (5일)	448,907	461,854	434,882	467,218	475,575
		이동평균 (20일)	368,689	377,013	380,890	393,712	401,829
	거래대금	(십억원)	1,833	1,875	2,045	2,066	1,699
		이동평균 (5일)	1,870	1,892	2,001	1,973	1,904
		이동평균 (20일)	1,630	1,650	1,705	1,717	1,734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164	245	136	35	-281
	외국인	(억원)	-61	-42	-84	-286	154
	기관	(억원)	-68	-202	-9	208	44
	일반법인	(억원)	-48	8	-38	38	99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증시 자금동향

역내 펀드 자금유출입

	12년 말	주간증감	1/14	1/15	1/16	1/17
고객예탁금	180,143		177,578	181,773	182,095	176,803
(증감)		-56	+719	+4,195	+322	-5,292
신용융자 (거래소)	22,029		23,005	23,174	23,401	23,362
(증감)		+594	+238	+169	+227	-39
신용융자 (코스닥)	17,095		17,507	17,593	17,600	17,660
(증감)		+178	+25	+86	+7	+61
미수금	1,241		1,530	1,601	1,656	1,868
(증감)		+145	-194	+71	+55	+212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37,330		732,077	731,941	732,034	733,461
(증감)		+1,734	+350	-137	+94	+1,427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펀드 포함)	654,863		647,206	646,879	646,980	648,030
(증감)		+659	-165	-326	+101	+1,049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496,600		490,482	490,019	489,988	489,828
(증감)		-995	-341	-462	-31	-161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82,467		84,872	85,061	85,054	85,432
(증감)		+1,075	+515	+190	-7	+378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83,050		282,340	282,281	282,037	281,732
(증감)		-1,371	-763	-59	-244	-306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100,435		98,768	98,691	98,662	98,636
(증감)		-339	-207	-77	-29	-26
해외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26,233		26,113	25,975	25,970	25,974
(증감)		-47	+92	-137	-5	+4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192,042		190,840	190,863	192,637	192,538
(증감)		+1,397	-301	+23	+1,774	-99
채권형 수익증권	468,680		474,030	473,945	475,035	475,493
(증감)		+1,295	-168	-85	+1,090	+458
MMF	636,706		728,168	737,844	770,513	776,063
(증감)		+52,554	+4,659	+9,676	+32,669	+5,550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키움증권

>>> 외국인/기관 주간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롯데케미칼	456	삼성전자	1,313
2	SK하이닉스	387	LG디스플레이	751
3	고려아연	371	SK이노베이션	701
4	롯데쇼핑	332	현대모비스	700
5	현대백화점	304	SK텔레콤	595
6	KB금융	259	한국전력	483
7	삼성생명	249	KODEX 200	359
8	NHN	205	LG화학	299
9	현대건설	191	삼성증권	286
10	삼성SDI	186	롯데하이마트	286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삼성생명	1,170	삼성전자	1,322
2	SK텔레콤	805	SK하이닉스	1,119
3	현대차	712	KODEX 레버리지	754
4	LG디스플레이	675	현대중공업	456
5	한국전력	655	GS	381
6	현대모비스	610	삼성SDI	354
7	삼성증권	567	NHN	318
8	우리금융	554	현대위아	290
9	대우조선해양	412	롯데쇼핑	287
10	KODEX 인버스	372	TIGER 200	286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외국인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파트론	122	네오위즈게임즈	339
2	CJ오쇼핑	83	네오위즈	60
3	인터플렉스	55	파라다이스	44
4	다음	48	코미팜	35
5	동서	45	제닉	31
6	CJ E&M	39	씨앤케이인터	26
7	셀트리온	31	씨젠	24
8	홈캐스트	26	에스맥	24
9	비에이치	24	에스엠	23
10	덕산하이메탈	23	성광벤드	22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서울반도체	239	파트론	149
2	네오위즈게임즈	114	인터플렉스	134
3	오스템임플란트	102	경창산업	100
4	CJ E&M	84	포스코엠텍	89
5	성광벤드	70	CJ오쇼핑	88
6	SK브로드밴드	65	멜파스	73
7	이녹스	58	웰크론한텍	51
8	옵트론텍	44	씨젠	45
9	휴맥스	39	셀트리온	44
10	네오위즈	37	인터파크	44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Technical Approach

전고점 돌파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웅진케미칼	925	쌍용건설	4,710
삼성생명	106,500	에프티이앤이	4,620
동양	1,210	옵트론텍	14,300
한전기술	81,700	동양시멘트	3,680
쌍용양회	6,030	서울반도체	26,900
우리금융	12,400	이녹스	24,800
농심	294,000	서원인텍	9,900
종근당	43,200	아이디스	76,900
대상	32,050	바이오니아	13,700
코웨이	45,800	CJ E&M	32,550

주: 전일 종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율 상위 종목

상한가 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없음		없음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이격 확대종목 (단위: %)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한진중공업	77	멜파스	82
넥센타이어	87	포스코엠텍	83
한진중공업홀딩스	89	인터플렉스	85
현대엘리베이	91	아이엠	85
LG패션	91	이라이콤	87
한국타이어월드와	91	유니슨	91
STX엔진	92	엘비세미콘	91
삼성정밀화학	92	이엘케이	92
LG이노텍	92	코미팜	92
KPX케미칼	93	서부T&D	92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대한전선	4,195	루멘스	7,620
우리금융	12,400	예림당	5,580
한라건설	8,430	모베이스	13,950
JW홀딩스	2,330	에이스침대	76,900
현대해상	33,750		
KODEX 보험	7,865		
한국금융지주	44,500		
신한지주	40,200		
삼성증권	56,500		
신흥	7,210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율 상위 종목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단위: %)

KOSPI	Slow %K	KOSDAQ	Slow %K
삼성화재	25	동양이엔피	23
세아베스틸	22	평화정공	22
GS건설	21	팅크웨어	22
		사람인에이치알	21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거래 급증종목 (단위: %)

KOSPI	거래증가률	KOSDAQ	거래증가률
우리금융	317.05	쌍용건설	721.73
대한전선	266.26	현대정보기술	413.75
농심	263.69	우리이티아이	363.92
우리투자증권	239.10	루멘스	355.02
STX팬오션	238.83	대아티아이	340.85
삼성생명	236.02	이노와이어	306.26
쌍용양회	222.65	스틸플라워	280.73
대우증권	174.20	하림홀딩스	246.49
웅진케미칼	166.68	서울반도체	223.94
한전기술	154.55	티씨케이	215.26

주: 전일 3% 이상 주가 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 이상 거래증가 종목

외국인 지분율 확대종목 (단위: %)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없음		다음	51.81
		하이비젼시스템	5.07

주: 20 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단위: %)

KOSPI	주가 등락율	KOSDAQ	주가 등락율
삼성생명	5.45	씨티씨바이오	6.25
한전기술	4.48	서울반도체	5.08
모토닉	4.23	이녹스	5.08
우리금융	3.77	테라세미콘	4.30
한솔제지	3.72	아이디스홀딩스	3.03
종근당	3.23	에스에너지	2.94
한솔테크닉스	3.23	비에이치아이	2.64
한올바이오파마	2.93	덕산하이메탈	2.16
대상	2.72	MDS테크	2.08
에이블씨엔씨	2.40	제이콘텐트리	2.04

주: 최근 10일 중 7일 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등락률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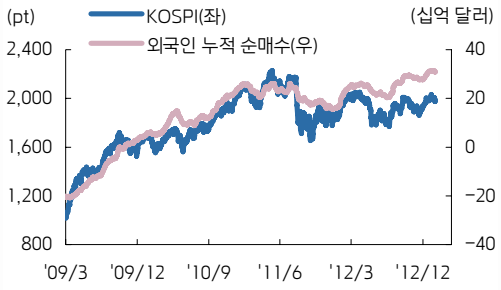
>>> 아시아 증시 외국인 및 Global Fund Flow 동향

외국인, 지난 주 매수 우위 (단위: Mil $, %, pt)

	대표지수 동향		외국인 순매수 금액				
	1월 18일	등락률	1월 11일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누적
한국	1,987.85	0.7	-12.3	-478.3	991.0	1,923.0	10,349.3
대만	7,732.87	1.5	105.9	11.9	-104.4	2,496.3	6,821.4
인도	20,039.04	0.7	142.2	839.5	4,061.6	8,887.2	16,865.0
태국	1,434.44	0.9	-2.0	172.9	689.4	980.8	641.3
필리핀	6,139.21	1.1	15.2	16.9	584.4	802.8	989.9
인도네시아	4,465.48	1.5		173.0	509.9	243.5	1,762.4
일본	10,913.30	2.9	-	2,621.7	16,359.2	30,253.6	24,7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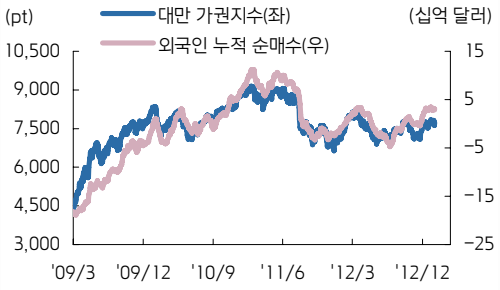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일본 1주 지연 데이터, 인도 1일 지연 데이터

한국 증시(KOSPI)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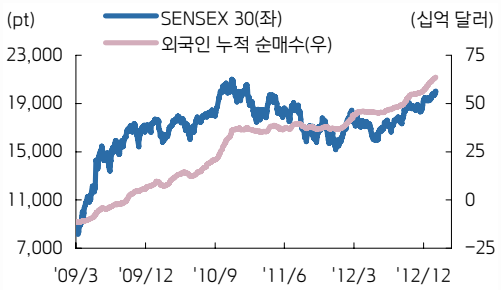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대만 증시(TWSE)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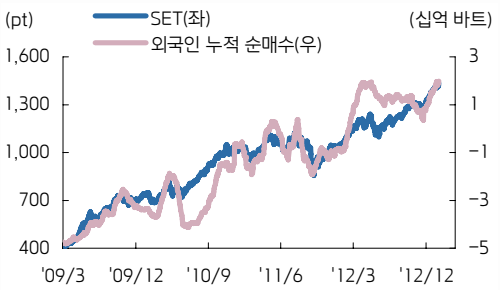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 증시(SENSEX)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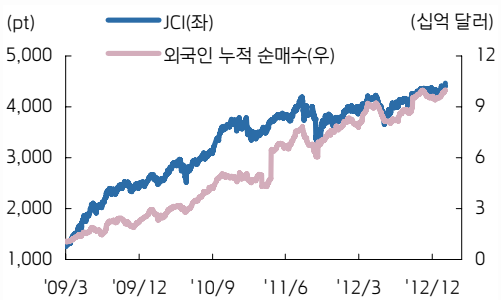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태국 증시(SET)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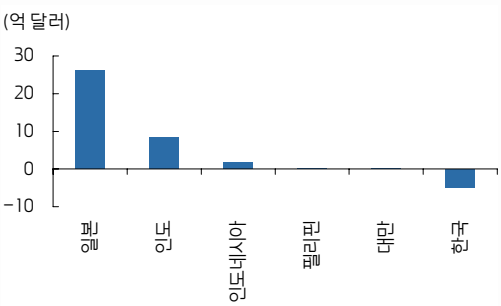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네시아(JCI)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지난주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MSCI 주요 지역별 실적전망 변화

세계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IT, 에너지, 통신서비스, 경기소비재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8	0.4	-0.8	0.4	-0.4	-2.3	-3.8	-6.6	-18.6	-19.9	-31.2	12.4
에너지	1.3	1.0	-2.3	-1.0	0.4	-1.6	-2.4	-3.5	-34.1	-20.2	-63.2	10.1
소재	-0.1	-0.3	-3.3	-10.8	-1.5	-7.4	-18.7	-21.5	-40.8	-38.8	-59.9	12.5
산업재	0.3	-1.1	-4.6	-3.4	-2.0	-6.0	-7.0	-14.7	-36.4	-37.8	-24.3	13.1
경기소비재	0.9	1.3	-2.2	1.3	-0.5	-5.9	-5.5	1.3	-18.8	-19.2	-21.4	13.6
필수소비재	0.7	0.5	1.4	5.0	-0.4	-0.7	0.3	-6.2	-15.4	4.8	-15.5	15.6
의료	0.6	-0.5	-0.5	1.9	1.8	1.5	2.4	1.5	6.6	-0.8	-9.2	13.3
금융	0.6	0.8	1.7	4.1	-0.7	-1.7	-2.0	-1.2	-3.2	-2.6	-27.2	11.1
IT	2.1	0.3	-0.8	-1.5	-0.6	-1.4	-5.0	-8.2	-3.8	-38.0	-39.0	12.4
통신서비스	1.0	4.2	15.1	35.6	3.2	11.2	25.2	-9.2	-35.6	-37.2	-19.8	12.2
유틸리티	0.0	0.3	2.7	5.9	0.8	5.3	5.6	-5.3	-9.0	-11.9	-27.4	14.0

한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유틸리티, IT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4	1.6	2.8	3.6	-1.7	-3.2	-7.4	-25.3	-40.0	-27.2	-30.6	8.5
에너지	-0.9	-0.4	0.3	-5.8	-1.2	-8.3	-25.4	-33.3	33.3	-66.7	-33.3	8.6
소재	-0.2	-2.9	-12.7	-15.8	-7.0	-18.8	-26.9	-33.3	-54.5	-38.5	-50.0	10.4
산업재	0.1	-18.4	-19.8	-20.4	-17.5	-17.2	-21.8	-36.8	-37.5	-8.3	-14.3	11.5
경기소비재	-0.4	0.9	-0.8	5.2	0.1	-3.1	0.3	0.0	-58.3	-9.1	-25.0	6.4
필수소비재	0.0	13.2	7.2	7.9	0.1	-5.9	-8.6	-75.0	-20.0	-33.3	16.7	14.7
의료	-1.5	1.4	-7.3	-3.4	-1.8	-14.4	-18.5	50.0	-100.0	0.0	0.0	20.4
금융	-0.6	-0.2	-6.7	-12.0	-1.0	-6.4	-9.4	-40.0	-70.0	-30.0	-50.0	8.1
IT	1.0	4.3	15.2	19.1	1.1	7.1	2.7	25.0	37.5	-75.0	-50.0	8.4
통신서비스	0.0	0.5	6.5	5.8	-2.1	2.2	-14.8	-33.3	33.3	-66.7	-66.7	8.7
유틸리티	44.0	59.4	103.3	91.4	5.6	41.0	5374.0	-50.0	-100.0	50.0	0.0	15.0

미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통신서비스, IT, 에너지, 필수소비재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2.1	0.5	-0.7	0.8	0.0	-1.2	-1.4	-8.9	-10.7	0.5	-38.8	13.1
에너지	2.6	1.1	-3.2	-0.1	0.3	-1.7	0.4	-5.5	-43.6	-7.4	-70.9	11.5
소재	1.7	0.2	-2.8	-3.5	-0.8	-5.7	-11.9	-35.3	-5.9	-14.3	-48.6	13.4
산업재	1.3	-0.2	-2.6	-2.2	-0.8	-2.7	-4.0	-15.3	-30.1	-34.7	-41.3	13.4
경기소비재	1.9	1.1	0.6	3.0	-0.4	-0.9	1.4	5.0	-6.0	-6.1	-26.5	15.5
필수소비재	2.4	0.4	2.1	4.2	-0.5	-0.1	-0.3	-10.6	21.3	44.7	-13.0	15.1
의료	1.3	-0.7	-1.2	0.8	3.5	3.0	3.4	-8.5	-1.7	13.8	-24.1	13.2
금융	2.1	1.5	3.1	6.3	-1.2	-3.0	-2.0	-10.8	-14.4	30.5	-35.3	11.8
IT	2.7	-0.3	-3.4	-4.4	-0.6	-1.8	-4.4	-9.5	-3.6	-28.2	-58.8	12.2
통신서비스	3.2	2.8	6.4	13.6	0.6	2.2	-0.1	-30.0	-10.0	-20.0	-27.3	17.4
유틸리티	2.0	0.7	-0.1	1.1	1.0	0.7	1.7	0.0	0.0	27.3	-30.3	14.5

중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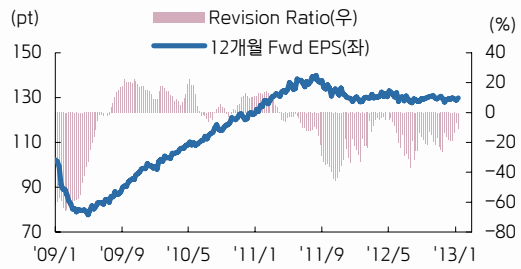
금융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3	1.5	1.8	-1.5	0.1	-1.5	-5.6	-1.5	-23.7	-31.2	-46.2	10.1
에너지	0.1	0.6	0.4	-4.7	-0.2	-0.1	-7.1	0.0	11.1	-33.3	-100.0	10.0
소재	-0.1	1.2	2.0	-14.4	-1.2	-8.6	-32.0	-5.3	0.0	-61.9	-63.6	11.0
산업재	-0.1	0.7	-1.2	-8.9	-0.4	-6.6	-18.3	8.3	-40.0	-46.4	-37.9	12.0
경기소비재	0.0	1.5	-0.8	-7.8	-0.3	-6.9	-18.5	-5.9	-64.7	-42.1	-73.7	13.7
필수소비재	0.2	1.1	-1.3	-7.0	-0.5	-6.3	-11.9	-18.2	-72.7	-45.5	-18.2	22.3
금융	0.6	2.0	2.6	1.0	0.3	-1.1	-1.2	3.0	-9.1	0.0	-40.6	7.9
IT	0.0	1.7	2.1	-1.3	-1.3	-7.7	-15.7	-40.0	60.0	-40.0	-60.0	20.5
통신서비스	0.1	0.9	1.2	1.3	0.4	0.7	0.0	-25.0	-75.0	0.0	-50.0	12.0
유틸리티	-0.2	2.0	5.7	15.3	1.0	1.3	4.7	25.0	0.0	12.5	25.0	12.4

자료: IBES(2013. 01. 17 기준), 키움증권
주: Revision Ratio, PER은 12개월 Forward EPS 기준
Revision Ratio = [(12개월 Forward EPS 상향조정 기업 수 - 하향조정 기업 수) / 총 기업 수]
중국 의료 업종은 Data가 없는 관계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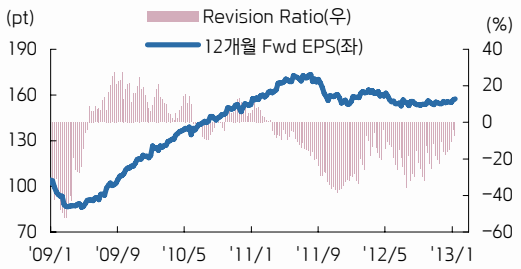
>>> MSCI 주요 지역별 12M Fwd EPS & Revision Ratio 추이

A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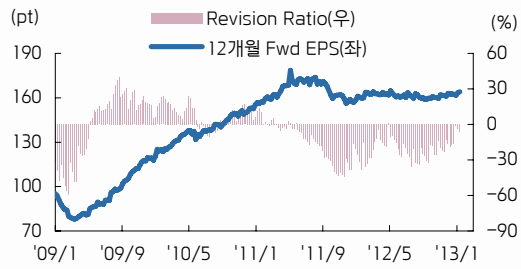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MERG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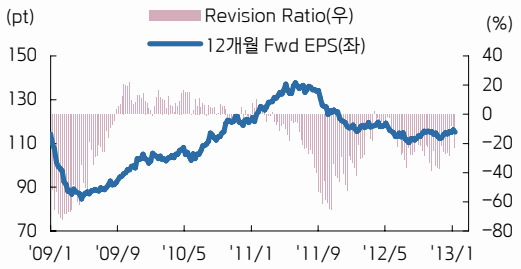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ASIA-PAC, EX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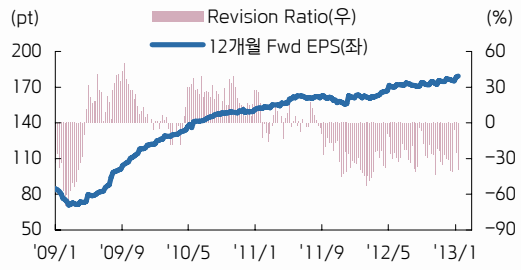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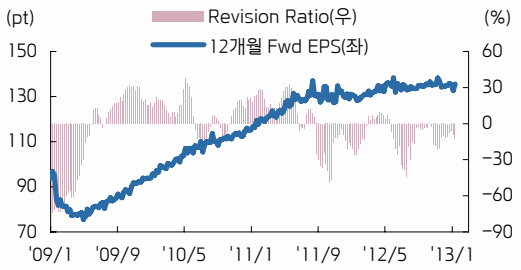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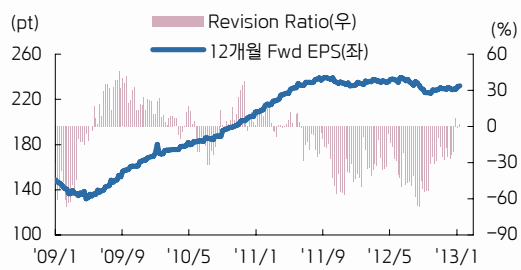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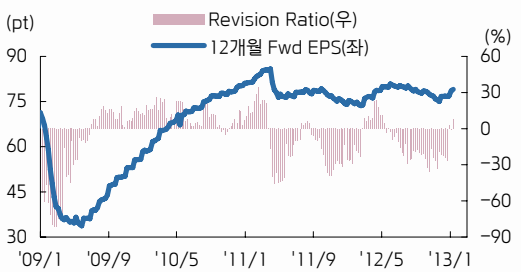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CHINA



자료: IBES,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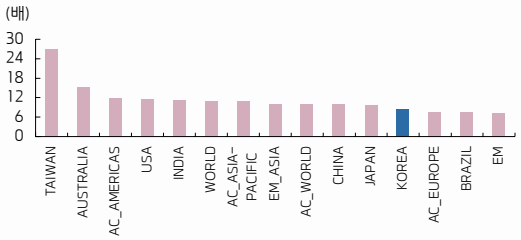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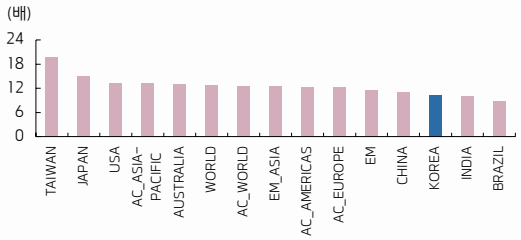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PER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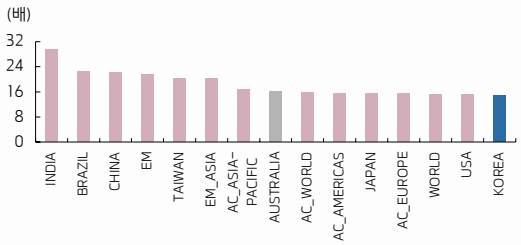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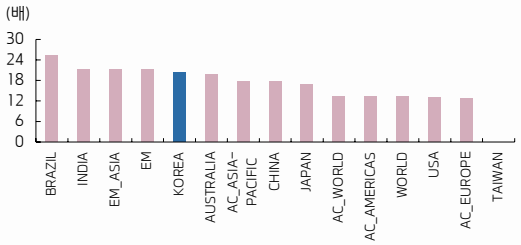
산업재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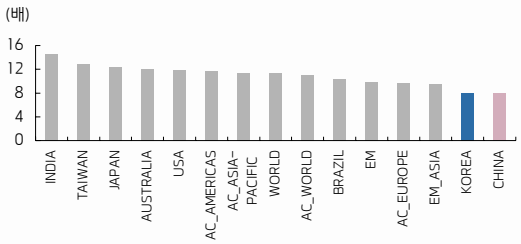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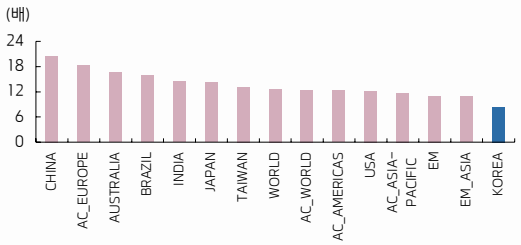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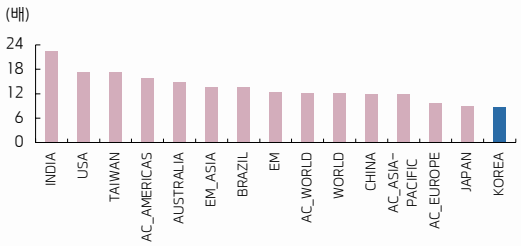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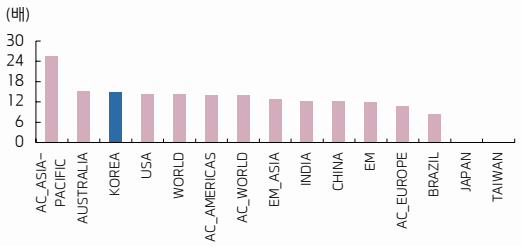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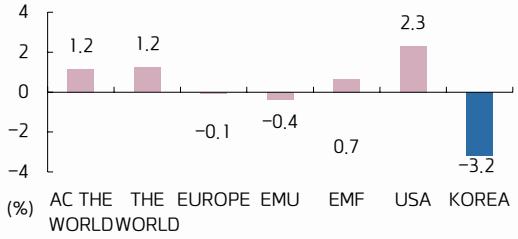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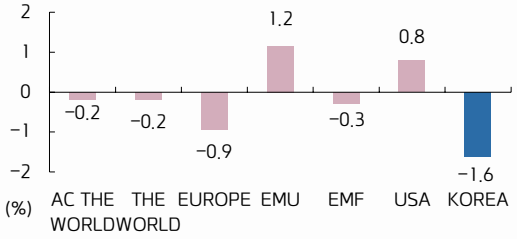
자료: IBES (2013. 01. 17 키움증권
주: Taiwan 의료/유틸리티 업종 집계되지 않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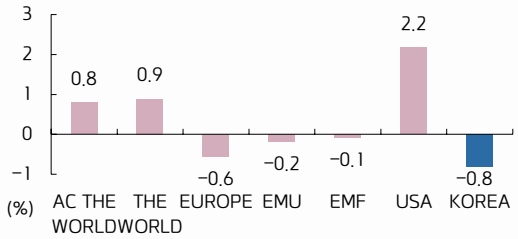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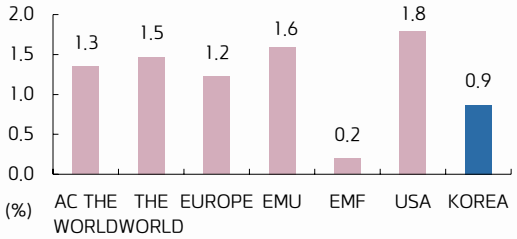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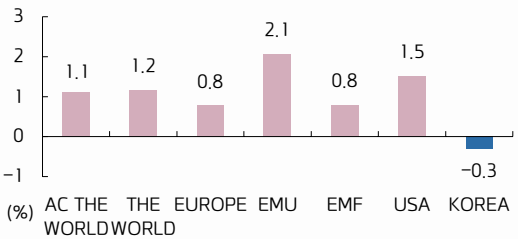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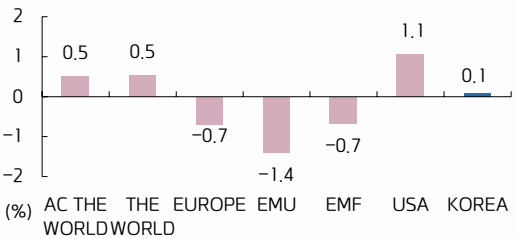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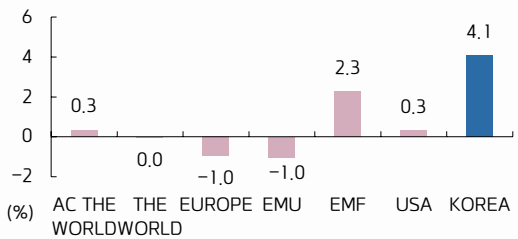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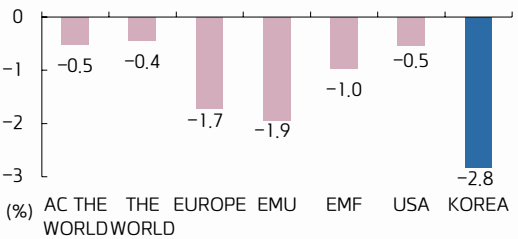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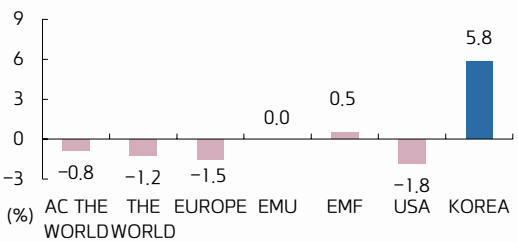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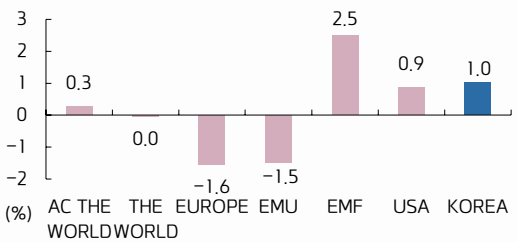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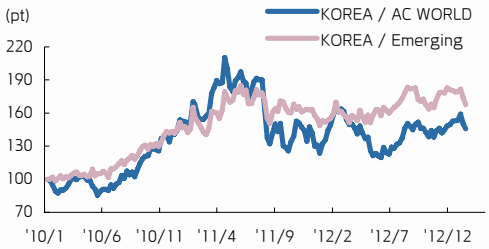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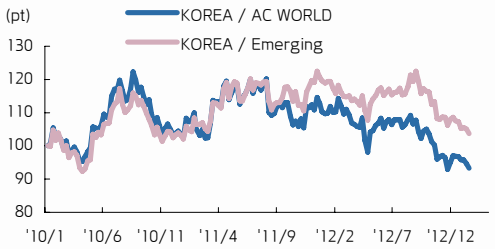


>>> MSCI KOREA 주요 시장대비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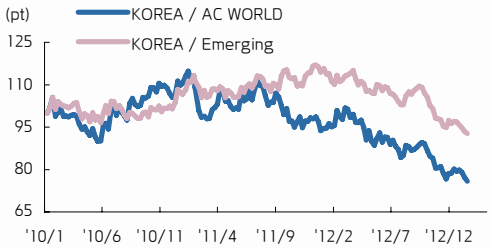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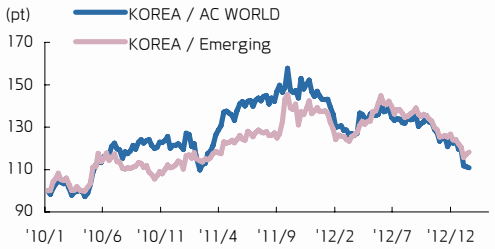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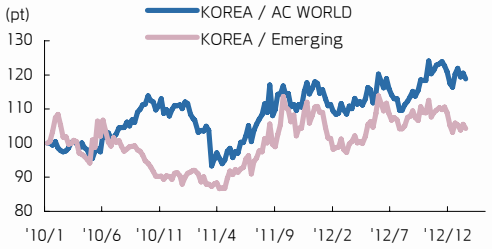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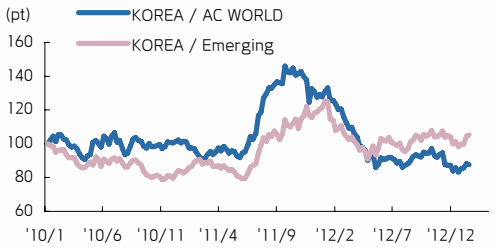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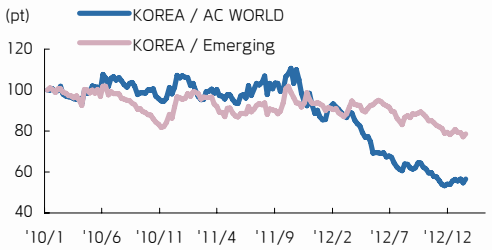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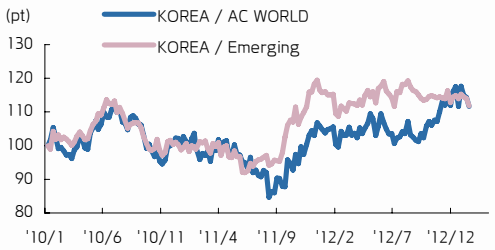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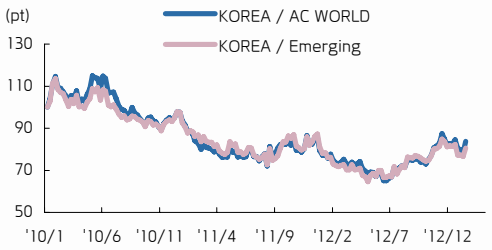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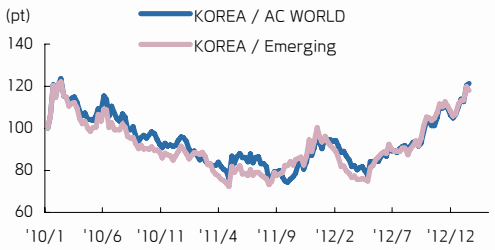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 해외 주요지수 · 종목 동향

	종가	D-1	D-5	D-20
주요국 지수				
Dow	13,649.70	+0.39%	+1.20%	+3.00%
NASDAQ	3,134.71	-0.04%	+0.29%	+2.97%
S&P 500	1,485.98	+0.34%	+0.95%	+3.49%
Semiconductor	410.64	-0.46%	+1.93%	+5.44%
NYSE	8,792.63	+0.30%	+0.92%	+3.88%
NASDAQ 100	2,743.24	-0.14%	-0.18%	+1.94%
S&P 100	671.37	+0.30%	+0.52%	+2.97%
S&P mid 400	1,073.93	+0.27%	+1.51%	+4.94%
S&P small 600	500.06	+0.39%	+1.63%	+5.27%
Russell 2000	892.80	+0.27%	+1.37%	+5.30%
영국	6,154.41	+0.36%	+0.54%	+3.68%
독일	7,702.23	-0.43%	-0.17%	+1.39%
프랑스	3,741.58	-0.07%	+0.96%	+2.55%
일본	10,913.30	+2.86%	+2.45%	+12.01%
대만	7,732.87	+1.53%	-1.16%	+1.81%
홍콩항셍	23,601.78	+1.12%	+1.45%	+4.92%
홍콩 H	12,105.71	+2.09%	+2.22%	+7.11%
상하이종합	2,317.07	+1.41%	+3.30%	+7.15%
상하이A	2,425.51	+1.41%	+3.30%	+7.11%
선전A	976.60	+1.52%	+5.62%	+14.43%
태국	1,434.44	+0.95%	+1.58%	+4.07%
싱가폴	3,211.22	+0.50%	-0.16%	+1.67%
인도네시아	4,465.48	+1.53%	+3.71%	+3.47%
러시아	1,603.50	+1.14%	+2.02%	+6.92%
인도	20,039.04	+0.38%	+1.91%	+3.01%
멕시코	45,212.53	+0.60%	+0.72%	+3.58%
브라질	61,956.14	-0.38%	+0.75%	+4.01%
한국	1,987.85	+0.69%	-0.44%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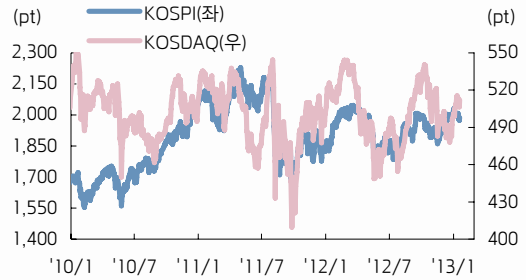
	종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금(COMEX)	1,687.00	-0.22%	+1.59%	+1.23%
천연가스(NYMEX)	3.57	+2.06%	+7.18%	+7.41%
알루미늄(LME,3M)	2,057.50	+0.86%	-2.81%	-1.98%
전기동(LME,3M)	8,085.00	+1.57%	-0.06%	+0.58%
아연(LME,3M)	2,047.00	+2.58%	+0.54%	-2.06%
WTI(현물)	95.56	+0.07%	+2.14%	+6.76%
옥수수	727.5	+0.41%	+2.65%	+3.49%
설탕(NYBOT/ICE)	18.37	-0.27%	-4.17%	-4.47%
한국 DR 및 환율				
KB금융지주(ADR)	37.25	+0.76%	+2.62%	+4.20%
신한지주(ADR)	37.89	+0.50%	+2.35%	+7.80%
LG디스플(ADR)	13.39	-0.30%	-4.01%	-9.16%
POSCO(ADR)	84.50	-0.56%	-0.71%	+1.84%
SK텔레콤(ADR)	17.08	+0.41%	+4.66%	+4.98%
한국전력(ADR)	16.09	+1.19%	+1.77%	+22.45%
KT(ADR)	17.59	+0.86%	+4.39%	-0.06%
우리금융지주(ADR)	35.33	+2.35%	+9.14%	+10.54%
삼성전자(GDR)	699.00	-0.99%	-4.38%	-0.43%
삼성전자 우 (GDR)	397.00	-1.12%	-3.17%	-2.12%
현대차 우 (GDR)	32.76	+1.58%	+2.86%	-0.43%
LG전자(GDR)	9.80	0.00%	-1.21%	+2.62%
롯데쇼핑(GDR)	18.16	+1.45%	+2.02%	+6.95%
STX팬오션(SGD)	6.63	+5.74%	+11.62%	+47.33%
원/달러	1,057.20	-0.09%	+0.24%	-1.64%
엔/달러	90.10	+0.24%	+1.03%	+6.96%
달러/유로	1.3321	-0.41%	-0.16%	+1.01%
위안화/달러	6.2181	+0.05%	+0.04%	-0.19%

다우지수 구성종목				
3M	98.74	+0.67%	+2.56%	+6.15%
Alcoa	9.00	+0.67%	+0.67%	+4.17%
Altria Group	32.99	+0.85%	+1.03%	+2.72%
American Express	59.78	-1.58%	-2.38%	+5.27%
AIG	35.21	-0.34%	-0.40%	+0.57%
AT&T	33.44	+0.72%	-2.42%	-1.39%
Boeing	75.04	-0.29%	-0.16%	-0.62%
Caterpillar	97.62	+2.01%	+2.55%	+7.52%
Citigroup	41.66	+1.02%	-1.61%	+5.60%
Coca Cola	37.70	+0.51%	+2.14%	+2.50%
Du Pont	46.99	+1.36%	+1.82%	+4.77%
Exxon Mobil	90.80	+0.67%	+1.33%	+2.74%
General Electric	22.04	+3.47%	+4.31%	+4.90%
General Motors	29.28	-0.71%	-3.56%	+7.73%
Hewlett Packard	17.11	0.00%	+5.88%	+18.98%
Home Depot	65.47	+0.65%	+2.78%	+5.99%
Honeywell	35.09	-0.34%	-0.40%	+0.57%
IBM	194.47	+0.42%	+0.01%	-0.31%
Intel	21.25	-6.31%	-3.41%	+0.76%
J&J	73.23	+0.45%	+1.22%	+3.68%
JPMorgan	46.46	+0.04%	+0.69%	+6.73%
McDonald's	92.26	+0.54%	+0.58%	+2.85%
Merck	42.98	+0.54%	-0.58%	-1.51%
Microsoft	27.25	+0.07%	+1.57%	-0.22%
Pfizer	26.54	-1.08%	+0.08%	+4.69%
P&G	69.94	+0.39%	+1.04%	+0.87%
United Tech	86.95	+0.64%	+2.08%	+4.72%
Verizon	42.54	+0.97%	-1.76%	-1.94%
Wal Mart	69.20	+0.51%	+0.83%	+0.99%
Walt Disney	52.34	-0.13%	+3.48%	+4.81%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2.46	-10.22%	-7.87%	-2.38%
Altera	35.63	-0.17%	+1.02%	+3.13%
Applied Materials	12.65	+2.02%	+8.03%	+11.75%
Broadcom	34.80	-0.97%	-0.06%	+4.98%
Cree	33.76	+3.62%	+5.30%	-2.60%
Intel	21.25	-6.31%	-3.41%	+0.76%
KLA-Tencor	51.84	-0.10%	+5.39%	+8.18%
LAM research	40.12	+0.12%	+4.37%	+9.92%
Linear Tech	36.48	+0.33%	+2.10%	+6.85%
Marvell Tech	8.68	0.00%	+0.70%	-0.34%
MEMC	3.81	+0.26%	-3.05%	+14.41%
Micron Tech	7.89	+0.96%	+4.58%	+15.62%
National Semi	24.74	+0.20%	-0.12%	+0.57%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Sandisk	48.46	+0.14%	+4.15%	+10.49%
Stmicroelectron	8.30	-0.36%	+4.53%	+17.73%
Taiwan Semi	18.14	-0.66%	-0.06%	+6.14%
Teradyne	17.13	+0.29%	+0.18%	+2.64%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Xilinx	37.17	+2.00%	+3.83%	+3.11%
Apple	500.00	-0.53%	-3.90%	-5.00%
Ebay	54.21	+0.07%	+0.95%	+5.58%
Cisco	21.02	+0.31%	+2.61%	+3.68%
Dell	12.84	+0.16%	+18.01%	+22.40%
Research In Motion	15.84	+6.17%	+16.81%	+16.21%
Google	704.51	-0.96%	-4.79%	-2.17%
Nokia	4.43	-2.21%	-5.74%	+5.23%
Oracle	35.11	+1.42%	+0.72%	+2.99%
Qualcomm	64.68	-0.70%	-0.34%	+3.41%
Yahoo	20.02	-0.55%	+3.78%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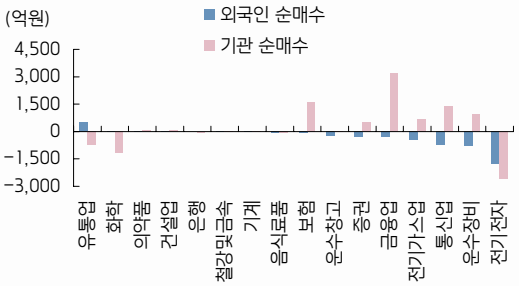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KOSPI vs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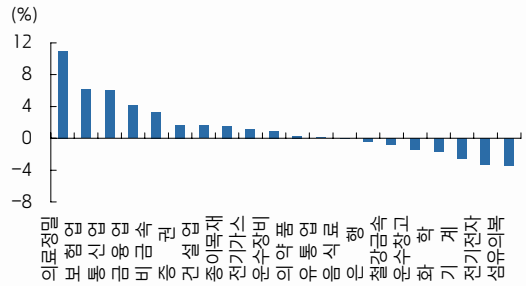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업종별 주간 기관 vs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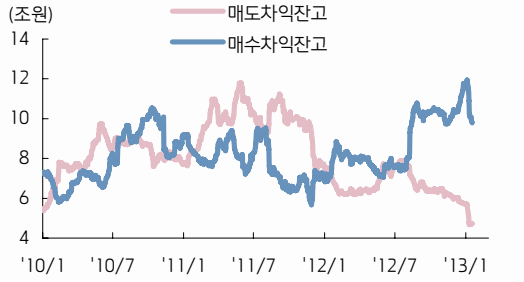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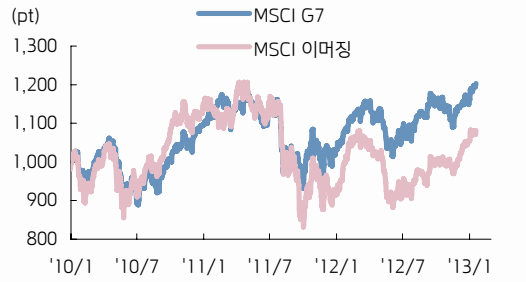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매수차익잔고 vs 매도차익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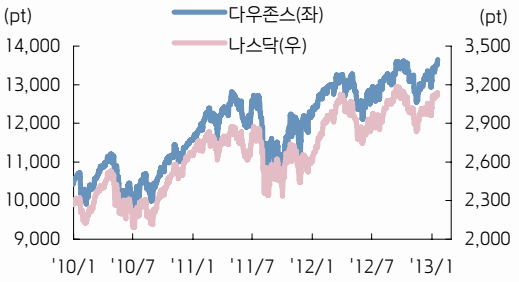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MSCI G7 vs MSCI 이머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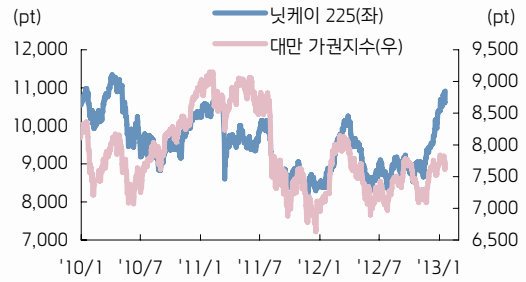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다우존스 vs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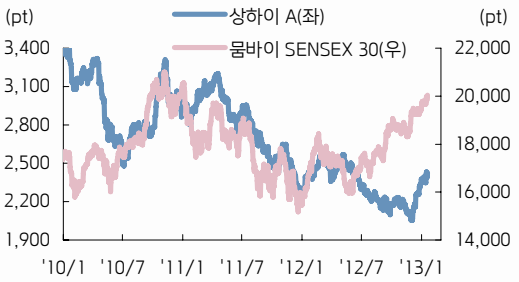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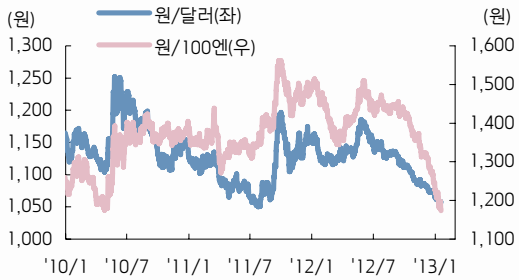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상하이 A vs 뭄바이 SENSEX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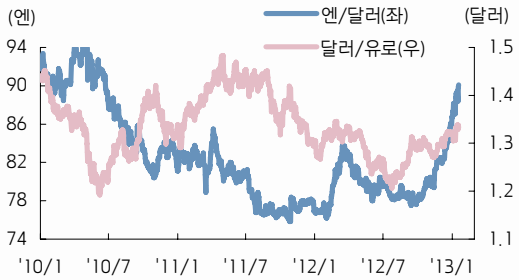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원/달러 vs 원/1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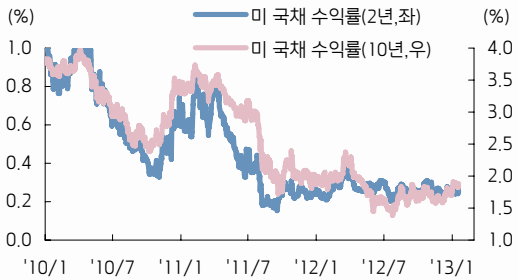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엔/달러 vs 달러/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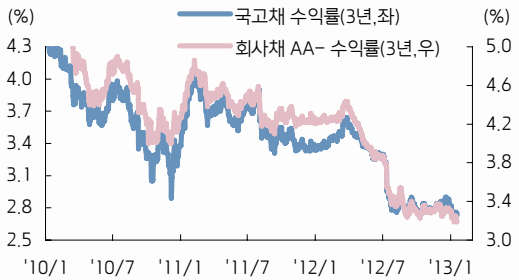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미 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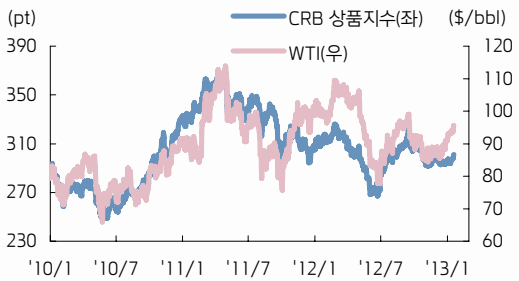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국고채 수익률 3년 및 회사채 AA- 수익률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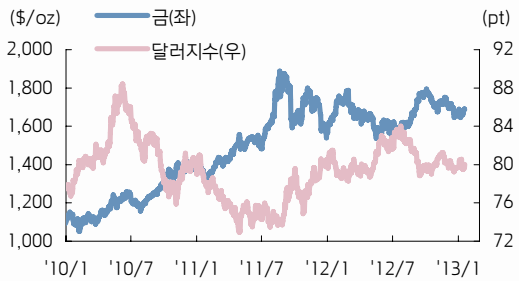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CRB 상품지수 vs WTI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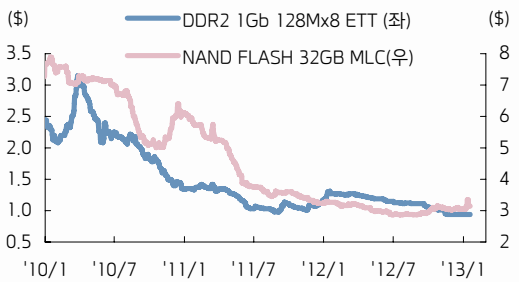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국제 금가격 vs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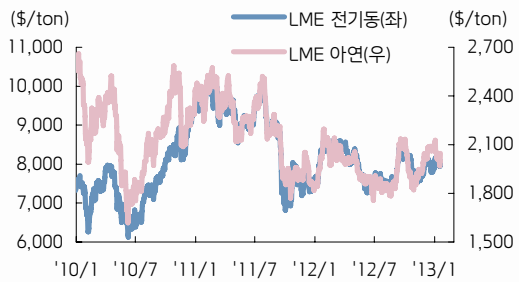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DRAM2 1GB vs NAND FLASH 32GB MLC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